

#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APIM 모형의 적용

최효식<sup>1</sup>, 연은모<sup>2\*</sup>

<sup>1</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sup>2</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Parent-Child Interact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APIM)

Hyo-Sik Choi<sup>1</sup>, Eun Mo Yeo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2</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2014년(7차년도, 만 6세), 2015년(8차년도, 초 1), 2016년(9차년도, 초2) 자료의 1,267쌍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 각각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자기효과가 있었다. 둘째, 상대방효과는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만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비교 결과,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과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단기종단분석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on parent-child interaction and to examine how they affect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sixty-seven pair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were analyzed from the 2014 to 2016 Korean Children Panel Surve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ctor-effect of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on parent-child interaction was significant for both father and mother. Second, the partner-effect of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of father on parent-child interaction was significant only for mother-child interactions. Third, the actor- and partner-effect of subjective happiness on parent-child interaction was higher for the father than the mother. Fourth, only the mother-child interaction showed full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on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how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affects the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Keywords** :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Parent-Child Interaction,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Eun Mo Yeon(Yeungnam University)

email: emyeon@ynu.ac.kr

Received December 9, 2021

Accepted March 4, 2022

Revised December 29, 2021

Published March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정신 건강은 부모의 양육 특성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 인지, 행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6].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오고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부모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의 긍정 정서보다는 부정 정서와 양육 특성 및 자녀의 발달 특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에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부모의 우울뿐 아니라 부모의 행복감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정신 건강과 자녀의 발달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신 건강을 함께 고려하기보다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분석하더라도 하나의 잠재변인으로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정신 건강이 자기와 배우자의 양육 특성 및 자녀의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셋째,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녀의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확인한 연구들이 횡단 자료에 기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중요한 지표이다[7, 8 재인용].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우울[8], 학습준비도[9], 학교생활적응[10]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sociometer theory)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의 수준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수용되었는지, 또는 거절당했는지의 사회적 피드백에 의해 결정된다[11].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지지받고,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의 질을 점검하는 계측기이며, 자아존중감은 관계의 질이 위협되었을 때 낮아져 관계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1, 12].

어머니와 아버지는 각자 자녀 발달 과정에 고유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한 명만 권위 있는 양육 행동을 보이는 것보다 가정 및 학교에서 자녀의 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자녀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효과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혼자일 때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자율성 지지를 할 때 더 강력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아버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보다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Möller 외(2016)[19]에 따르면 아버지의 양육은 어머니보다 유아의 불안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아버지-자녀 관계는 초기 청소년 시기의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예측하는 반면, 어머니-자녀 관계는 반사회적 행동 감소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또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여아의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부모의 정신 건강은 양육 태도 및 자녀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감 모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 부모가 빈번하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아동은 부모가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아동보다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23].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3], 자아존중감, 학교적응[4], 긍정적 사회적 행동[5] 뿐 아니라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24]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5, 26]. 아버지의 행복감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6]. 아버지의 내재화 문제는 어머니-자녀 간 정서적 대화를 부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1]. Erel과 Burman(1995)[27]의 전이가설(spillover hypothesis) 및 교차전이가설(crossover hypothesis)에 기초할 때, 부모의 정서 상태는 자신의 양육 특성으로 전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의 정서 상태는 배우자의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감은 자신의 양육 특성뿐 아

나라 배우자의 양육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삶에서 가장 이른 단계에 나타나며, 삶 전반을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28].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자녀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동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29]. 종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특성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30]. 그리고 어머니 지지와 아버지 지지 모두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1]. 경험적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스트레스[32], 우울[3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높은 질의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34], 자녀의 심리적 욕구 만족을 촉진[35]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고,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1)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는 어떠한가?
- 2)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은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2008년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매해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37].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4년(7차년도, 만 6세), 2015년(8차년도, 초 1), 2016년(9차년도, 초2) 자료의 주요 변인의 응답 자료가 있는 동일한 부모-자녀 1,267쌍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각 연도별로 부모와 자녀의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3개년도

자료(7차년도~9차년도)를 ID에 기초하여 매칭하여 사용하였다. 2014년(7차년도, 만 6세) 자료 기준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646명(51.0%), 여아 621명(49.0%)이며, 아동의 월령은 72개월 26명(2.1%), 73개월 145명(11.4%), 74개월 275명(21.7%), 75개월 360명(28.4%), 76개월 279명(22.0%), 77개월 118명(9.3%), 78개월 56명(4.4%), 79개월 8명(.6%)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24명(1.9%), 30대 966명(76.2%), 40대 271명(21.4%), 50대 4명(.3%), 무응답 2명(.2%)이며, 아버지의 연령은 20대 5명(.4%), 30대 678명(53.5%), 40대 565명(44.6%), 50대 15명(1.2%), 무응답 4명(.3%)이다.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s  
(N=1,267)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646	51.0
	Female	621	49.0
Child's age (months)	72	26	2.1
	73	145	11.4
	74	275	21.7
	75	360	28.4
	76	279	22.0
	77	118	9.3
	78	56	4.4
	79	8	.6
Mothers' age (yr)	25-29	24	1.9
	30-39	966	76.2
	40-49	271	21.4
	50-53	4	.3
	No response	2	.2
Fathers' age (yr)	25-29	5	.4
	30-39	678	53.5
	40-49	565	44.6
	50-55	15	1.2
	No response	4	.3

### 2.2 연구 도구

#### 2.2.1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36]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가 4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음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코드는 어머니

EMt14shs001~EMt14shs004, 아버지 FFt14shs001~FFt14shs004이다[37]. 2014년(7차년도, 만 6세) 자료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  $\alpha=.870$ , 아버지  $\alpha=.866$ 이다.

## 2.2.2 부모-자녀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10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1점) 전혀 하지 않음, (2점) 1~2번, (3점) 3~6번, (4점) 매일함’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7]. 문항 코드는 어머니 EMt15crs026~EMt15crs034, EMt15crs051이며, 아버지 FFt15crs026~FFt15crs034, FFt15crs051이다[37]. 2015년(8차년도, 초 1) 자료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어머니  $\alpha=.836$ , 아버지  $\alpha=.876$ 이다.

## 2.2.3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맞게 Rosenberg[7]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중 5문항으로 축소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아동이 4점 Likert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④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이다. 문항 코드는 JCh16sfs037~JCh16sfs041이다[37]. 2016년(9차년도, 초2) 자료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748$ 로 확인되었다.

## 2.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onbach's  $\alpha$  계수에 기초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으며, 모형에 투입된 3개 년도의 자료는 동일한 부모-자녀 쌍을 대상으로 한다. 인과관계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의 경우 동일한 대상(개인 또는 쌍 자료)에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등에 다른 변인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지만, 횡단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4년(7차년도) 자료,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2015년(8차년도) 자료,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2016년(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넷째, 부모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비교를 위해 등가제약에 기초한 경로계수 차이 검증을 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기술통계와 측정모형 검증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개 측정변인의 왜도, 첨도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142, N=1,267)=349.383$ ,  $p<.001$ , TLI=.978, CFI=.982, RMSEA=.034 (90% 신뢰구간=.029~.038), SRMR=.025로 확인되어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Table 3에 제시된 AVE, CR, 요인부하량을 고려했을 때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AVE 값이 크기 때문에 변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38 재인용].

### 3.2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APIM 모형에 기초하여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71, N=1,267)=182.869$ ,  $p<.001$ , TLI=.986, CFI=.989, RMSEA=.035, SRMR=.023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를 보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beta=.158$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beta=.20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beta=.09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3.3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 차이 비교

먼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 비교를 위해 동일화 제약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intercorrelations among the observed variables

(N=1,2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840**	1																	
3	.679**	.705**	1																
4	.549**	.554**	.525**	1															
5	.393**	.382**	.296**	.298**	1														
6	.359**	.379**	.304**	.299**	.851**	1													
7	.286**	.296**	.266**	.241**	.643**	.657**	1												
8	.286**	.303**	.239**	.260**	.563**	.564**	.532**	1											
9	.179**	.167**	.169**	.144**	.146**	.125**	.105**	.103**	1										
10	.136**	.138**	.127**	.104**	.113**	.116**	.098**	.083**	.619**	1									
11	.114**	.134**	.119**	.117**	.117**	.108**	.083**	.093**	.617**	.673**	1								
12	.098**	.109**	.077**	.068*	.171**	.157**	.138**	.101**	.208**	.250**	.210**	1							
13	.108**	.126**	.097**	.064*	.176**	.165**	.133**	.126**	.242**	.185**	.163**	.704**	1						
14	.118**	.151**	.108**	.095**	.210**	.198**	.174**	.141**	.253**	.233**	.190**	.705**	.676**	1					
15	.057*	.043	.014	.029	.099**	.062*	.062*	.053	.012	.067*	.021	.035	.024	.023	1				
16	.035	.058*	.044	.055	.040	.034	.053	.062*	.042	.080**	.042	.024	.046	.037	.418**	1			
17	.066*	.047	.072**	.036	.016	.027	.027	.013	.029	.076**	.050	.007	.017	.014	.305**	.453**	1		
18	.034	.037	.048	.021	.047	.056*	.053	.045	.034	.046	.025	.055*	.059*	.054	.374**	.329**	.324**	1	
19	.087**	.066*	.054	.076**	.069*	.048	.044	.033	.063*	.097**	.072*	.065*	.053	.050	.485**	.344**	.320**	.473**	1
M	5.40	5.31	5.00	5.31	5.48	5.42	5.16	5.27	2.06	2.13	2.38	1.90	1.83	1.82	3.54	3.26	3.16	3.75	3.65
SD	1.10	1.14	1.22	1.37	1.09	1.10	1.17	1.37	.52	.59	.61	.53	.55	.52	.63	.67	.73	.49	.57
Sk	-.63	-.65	-.51	-.54	-.46	-.40	-.32	-.44	.65	.36	.25	.57	.44	.55	-1.24	-.56	-.42	-1.92	-1.49
Ku	.36	.34	.24	-.27	-.09	-.22	-.13	-.46	.90	-.04	-.27	.38	.17	.61	1.37	.09	-.49	3.62	1.91

\*  $p < .05$ , \*\*  $p < .01$ , \*\*\*  $p < .001$

1: Mothers' subjective happiness(1), 2: Mothers' subjective happiness(2), 3: Mothers' subjective happiness(3), 4: Mothers' subjective happiness(4), 5: Fathers' subjective happiness(1), 6: Fathers' subjective happiness(2), 7: Fathers' subjective happiness(3), 8: Fathers' subjective happiness(4), 9: Mother-child interaction(1), 10: Mother-child interaction(2), 11: Mother-child interaction(3), 12: Father-child interaction(1), 13: Father-child interaction(2), 14: Father-child interaction(3), 15: Children's self-esteem(1), 16: Children's self-esteem(2), 17: Children's self-esteem(3), 18: Children's self-esteem(4), 19: Children's self-esteem(5)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267)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beta$	AVE	CR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Mothers' subjective happiness(1)	1			.615	.54	.82
	Mothers' subjective happiness(2)	1.105	.05	22.168***	.763		
	Mothers' subjective happiness(3)	1.253	.05	24.995***	.926		
	Mothers' subjective happiness(4)	1.173	.047	24.743***	.903		
Fathers' subjective happiness	Fathers' subjective happiness(1)	1			.625	.54	.82
	Fathers' subjective happiness(2)	.975	.045	21.517***	.714		
	Fathers' subjective happiness(3)	1.193	.047	25.612***	.923		
	Fathers' subjective happiness(4)	1.169	.046	25.558***	.918		
Mother-child inter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1)	1			.76	.84	.94
	Mother-child interaction(2)	1.242	.047	26.605***	.825		
	Mother-child interaction(3)	1.246	.047	26.451***	.811		
Father-child interaction	Father-child interaction(1)	1			.827	.89	.96
	Father-child interaction(2)	1.036	.033	31.384***	.82		
	Father-child interaction(3)	1.036	.032	32.321***	.855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self-esteem(1)	1			.659	.61	.89
	Children's self-esteem(2)	.979	.059	16.451***	.602		
	Children's self-esteem(3)	.95	.063	15.117***	.538		
	Children's self-esteem(4)	.727	.044	16.606***	.61		
	Children's self-esteem(5)	.936	.053	17.811***	.683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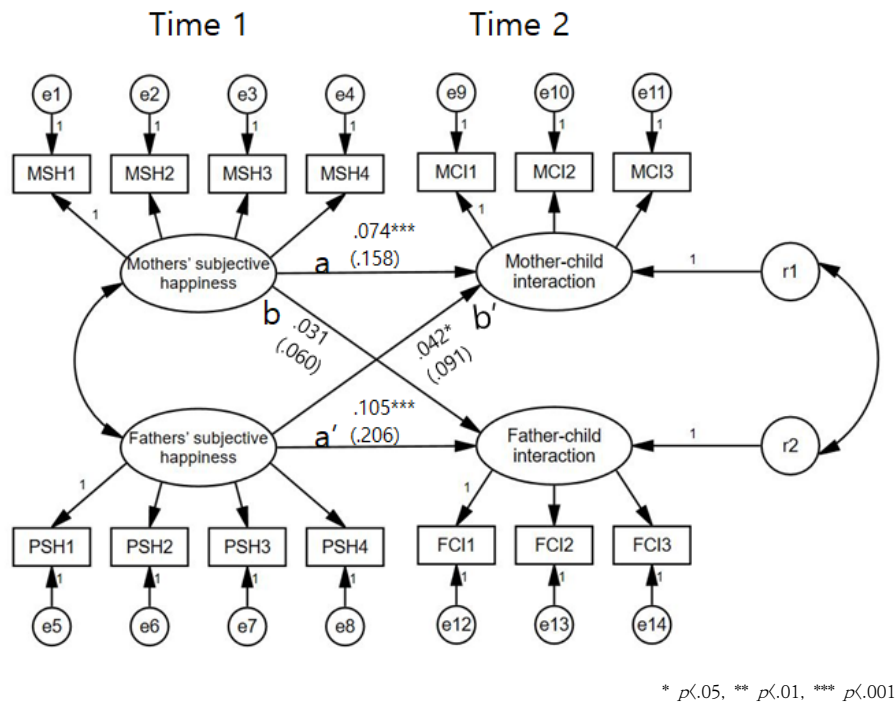


Fig. 1.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of parental subjective happiness predicting parent-child interaction

Table 4. Equality constraint tests

( $N=1,267$ )

Model	$\chi^2$	df	TLI	CFI	RMSEA (90% CI)	SRMR	$\chi^2$ difference test
Baseline model	182.869 ***	71	.986	.989	.035 (.029-.042)	.024	
Equality constraint ( $a=a'$ )	184.241 ***	72	.986	.989	.035 (.029-.041)	.024	$\chi^2(1) = 1.372$
Equality constraint ( $b=b'$ )	183.054 ***	72	.986	.989	.035 (.029-.041)	.024	$\chi^2(1) = .185$
Equality constraint ( $a=b'$ )	184.078 ***	72	.986	.989	.035 (.029-.041)	.025	$\chi^2(1) = 1.209$
Equality constraint ( $a'=b$ )	188.516 ***	72	.985	.988	.036 (.030-.042)	.027	$\chi^2(1) = 5.647^*$

\*  $p < .05$ , \*\*  $p < .01$ , \*\*\*  $p < .001$

( $a=a'$ )을 가했으며,  $\chi^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 = 1.372$ ,  $p > .05$ ).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크기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크기 비교를 위해 동일화 제약( $b=b'$ )을 가했으며,  $\chi^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 = .185$ ,  $p > .05$ ). 이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간 크기 비교를 위해 동일화 제약( $a=b'$ )을 가했으며,  $\chi^2$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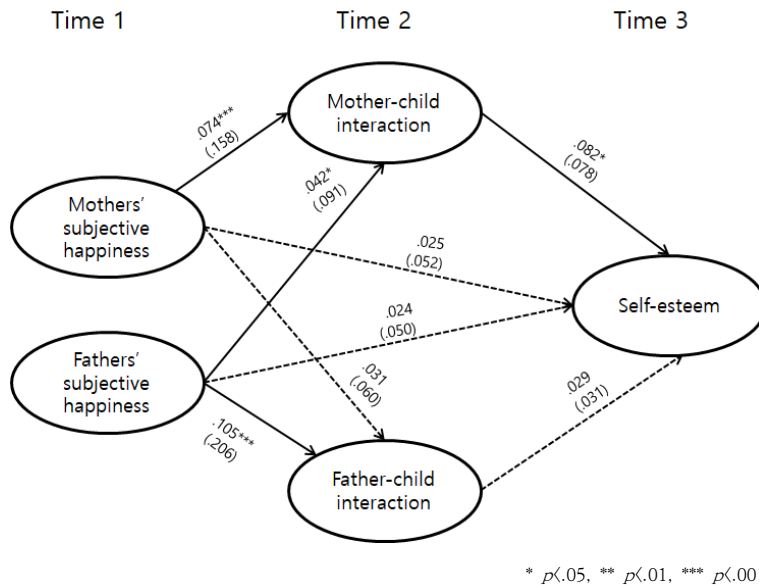


Fig. 2. Structure model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 = 1.209$ ,  $p > .05$ ). 이는 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크기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 간 크기 비교를 위해 동일화 제약( $a' = b$ )을 가했으며,  $\chi^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1) = 5.647$ ,  $p < .05$ ). 이는 부-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과가 상대방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3.4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구조모형 검증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 구조적 관계를 Fig. 2와 같이 분석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chi^2(df=142, N=1,267)=349.383$ ,  $p < .001$ , TLI=.978, CFI=.982, RMSEA=.034 (90% 신뢰구간=.029~.038), SRMR=.025로 확인되었다.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beta=.078$ )가 확인된 반면, 부-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bootstrapping,  $n=5,000$ ) 결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07$ ,  $p=.007$ ). 구체적으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2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도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Indirect effects in the model

Path	<i>b</i>	<i>p</i>
Mothers' subjective happiness→Mother-child interaction→Children's self-esteem	.006*	.023
Fathers' subjective happiness→Mother-child interaction→Children's self-esteem	.003*	.025

\*  $p < .05$

## 4. 논의 및 결론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데, 모-자녀 상호작용, 부-자녀 상호작용은 자녀의 발달 특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 상호작용,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안녕감이 모-자녀 상호작용, 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서 상태가 자신의 양육 특성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전이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 경험적 연구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행복감 모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2].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끼는 행복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느낄 수 있는 피로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동양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주양육자로서 양육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도 모-자녀 상호작용의 점수가 부-자녀 상호작용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 과정에 더 많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더 빈번하고, 긍정적인 모-자녀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 비교 결과, 어머니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이 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간 크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배우자의 행복감보다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이 부-자녀 상호작용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임을 의미한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도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자녀 상호작용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는 아버지의 지지적/긍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와 지지적/긍정적 양육 행동은 아동의 우울 징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지지적/긍정적 양육 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우울 징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39].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 특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5, 26]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자녀와 더 빈번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의 내재화 문제는 어머니-자녀 간 정서적 대화를 부분 매개로 유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1],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관계측정이론에 따르면 자아존중감 수준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수용 또는 거절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된다[11]. 긍정적이면서, 빈번한 모-자녀 상호작용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있다는 지각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모 교육 시 양육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안정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 자료에 기초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와의 상호작용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어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L. D. van der Pol, M. G. Groeneveld, J. J. Endendijk, S. R. van Berckel, E. T. Hallers-Haalsboom, M. J. Bakermans-Kranenburg, J. Mesman, "Associations between fathers' and mothers' psychopathology symptoms, parental emotion socialization, and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5, No.11, pp.3367-3380,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6-0490-x>
- [2] V. Heintz-Martin, C. Recksiedler, A. N. Langmeyer, "Household debt, maternal well-being, and child adjustment in Germany: Examining the family stress model by family struct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021.  
DOI: <https://doi.org/10.1007/s10834-021-09777-1>
- [3] J. R. Kim, N. H. Kim, "Relations among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4 No.1, pp.19-32, 2014.
- [4] M. J. Yeo, T. S. Le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happiness and child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8, No.7, pp.101-121, 2021.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07.28.7.101>
- [5] H. H. Song, "The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mother's happiness, and family health on infant 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6, No.1, pp.83-100, 2018.
- [6] S. J. Seo, M. H. Do, "The effects of paternal involvement and self-efficacy on the children's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3, pp.353-372, 2019.
- [7]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8] M. Zhong, X. Huang, E. S. Huebner, L. Tian,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294, pp.322-328, 2021.  
DOI: <https://doi.org/10.1016/j.jad.2021.07.016>
- [9] S. J. Yoon, Y. J. Yi,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between child's self-esteem and academic readiness",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11, pp.137-152, 2018.  
DOI: <https://doi.org/10.37918/kce.2018.07.111.137>
- [10] S. J. Han,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Culture and Convergence*, Vol.43, No.6, pp.595-618.
- [11] M. R. Leary, E. S. Tambor, S. K. Terdal, D. L. Downs,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3, pp.518-530,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8.3.518>
- [12] M. R. Leary, "Making sense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8, pp.32-35, 1999.  
DOI: <https://doi.org/10.1111/1467-8721.00008>
- [13] A. Sarkadi, R. Kristiansson, F. Oberklaid, S. Bremberg,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Vol.97, pp.153-158, 2008.  
DOI: <https://doi.org/10.1111/j.1651-2227.2007.00572.x>
- [14] J. Downer, R. Campos, C. McWayne, T. Gartner,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early learning: A critical review of published empirical work from the past 15 years", *Marriage & Family Review*, Vol.43, pp.67-108, 2008.  
DOI: <https://doi.org/10.1080/01494920802010264>
- [15] T. D. Foster, L. C. Froyen, L. E. Skibbe, R. P. Bowles, K. B. Decker, "Fathers' and mothers' home learning environments and children's early academic outcomes", *Reading and Writing*, Vol.29, pp.1845-1863, 2016.  
DOI: <https://doi.org/10.1007/s11145-016-9655-7>
- [16] Y. Luo, F. Chen, X. Zhang, Y. Zhang, Q. Zhang, Y. Li, Q. Zhou, Y. Wang, "Profiles of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Chinese families: Relations to preschoolers'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21, 105787, 2021.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787>
- [17] A. C. Vasquez, E. A. Patall, C. J. Fong, A. S. Corrigan, L. Pine, "Parent autonomy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A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28, No.3, pp.605-644,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648-015-9329-z>
- [18] E. Flouri, Z. Sarmadi, M. Francesconi, "Patern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child problem behavior from early childhood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58, No.4, pp.453-458, 2019.  
DOI: <https://doi.org/10.1016/j.jaac.2018.06.041>
- [19] E. L. Möller, M. Nikolić, M. Majdandžić, S. M. Bögers,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xiety and its precursors in

- early childhood: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45, pp.17-33, 2016.  
DOI: <https://doi.org/10.1016/j.cpr.2016.03.002>
- [20] G. M. Fosco, E. A. Stormshak, T. J. Dishion, C. E. Winter,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monitoring during middle school as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41, No.2, pp.202-213, 2012.  
DOI: <https://doi.org/10.1080/15374416.2012.651989>
- [21] R. A. Bean, J. C. Northrup,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sychological autonomy and acceptance as predictors of self-esteem i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0, pp.1486-1504, 2009.  
DOI: <https://doi.org/10.1177/0192513X09339149>
- [22] G. H. Kim, "The effect of parent'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16, pp.1-20, 2019.
- [23] J. Zeman, M. Cassano, C. Perry-Parrish, S. Stegall,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Vol.27, No.2, pp.155-168, 2006.
- [24] M. S.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1, No.3, pp.57-76, 2012.
- [25] K. H. Cho, M. H. Do,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1, No.4, pp.725-744, 2016.
- [26] Y. H. Choi, I. J. Park,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 mothers sense of community, happiness, resilience and ego-resiliency, and car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19, No.4, pp.315-351, 2018.
- [27] O. Erel, B. Burman,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No.1, pp.108-132, 199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8.1.108>
- [28] A. Thornton, T. L. Orbach, W. G. Axinn,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6, No.5, pp.538-564, 1995.  
DOI: <https://doi.org/10.1177/019251395016005003>
- [29] H. Chang, D. S. Shaw, E. C. Shelleby, T. J. Dishion, M. N. Wilson, "The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family check-up on peer preferenc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child effortful control as sequential media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45, No.4, pp.705-717,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802-016-0198-9>
- [30] Y. M. Lim, "Self-esteem as a mediator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parenting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6, 105224, 2020.
- [31] G. Frank, S. W. Plunkett, M. P. Otten, "Perceived parenting, self-esteem, and general self-efficacy of Irani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Vol.19, No.6, pp.738-746,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0-9363-x>
- [32] S. Mulyadi, W. Rahardjo, A. Basuki, "The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steem, academic self-efficacy to academic stres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217, pp.603-608, 2016.
- [33] S. Y. Park, J. U. Lee, C. S. L. Cheah, "The long-term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warmth on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American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26, 105999, 2021.
- [34] D. T. L. Shek, X. Q. Zhu, "Paternal and maternal influence on delinquency among early adolescent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6, 1338, 2019.  
DOI: <https://doi.org/10.3390/ijerph16081338>
- [35] R. Sun, Q. Gao, Y. Xiang, T. Chen, T. Liu, Q. Ch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mobile phone addiction tendency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er relationship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105113, 2020.
- [36] S. Lyubomirsky,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46, No.2, pp.137-155, 1999.  
DOI: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37] <http://panel.kicce.re.kr>
- [38] E. M. Yeon, H. S. Choi, "The relations of child's and parent's self-esteem and child's career maturity : Focused on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 pp.236-24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1.236>
- [39] K. W. Murdock, L. D. Pittman, C. P. Fagundes, "Maternal and paternal predictors of child depressive symptoms: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framework",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7, No.2, pp.559-568, 2018.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7-0910-6>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

---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